

지역 소식통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신규공무원 중심 친절교육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과장 김정숙)는 지난 18일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응대"를 주제로 전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친절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인사로 입사한 신규공무원을 중심으로 사무실 직원이 모두 참석할 가운데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업무 추진에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서면) 교육을 실시하였다.

갈수록 다양해지고 코로나19 업무까지 더해져 복잡해지는 민원인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응대방법, 전화응대요령, 악성 민원 대처방법 등 일선 업무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을 받은 한 공무원은 "스스로 작은 것부터 시민을 배려하고 민원인이 더 만족하고 더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가정방문 상담 진행

김제시 성덕면(면장 강기수)은 19일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가구에 대하여 가정방문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사례관리 대상자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주거환경, 생활실태와 욕구, 제 공된 급여 서비스에 대해서 파악하는 한편, 백미 10kg 후원 물품도 전달했다.

강기수 성덕면장은 "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지지체계와 인적연계를 구축하는 등 소외된 계층이 적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소상공 증가율 전북 1위

전북연구원 조사결과... 6.9%로 14개 시·군 중 가장 높아 통신판매업 30% 급증, 커피전문점 등도 두자릿수 증가율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도 완주군(군수 박성일)의 최근 소상공인 사업체 증가율이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전북연구원은 전날 '전라북도 지역통계 인포그래픽스'를 통해 올해 5월 기준 전북의 100대 생활업종 사업체수는 9만106개로 전년동월 대비 4.76% 증가했으며, 6.9%를 기록한 완주군의 증가율이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다.

완주군의 생활업종 사업체 수는 4,195개로 1년 전(3,925개)에 비해 270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완주군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0.7% 격증한 370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판매업의 급증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 대발 등 비대면으로 전환한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작년 5월에 138개였던 커피전문점도 올해 5월에는 160개로 부풀어 15.9%의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한식전문점도 847개에서 893개로 1년 사이 5.4% 증가했는데, 이는 14개 시·군의 같은 업종 증가율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완주군이 대도시 인근의 도농 복합도시인 점, 법적 문화도시 선정에 따른 기대감, 공동체 활성화 기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소규모

사업체 증가율이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호프전문점과 PC방, 간이주점 등은 1년 전보다 적게는 15%에서 최대 30% 이상 감소했다. 실제로 작년 5월까지만 해도 30개 사업자가 문을 열었던 호프전문점만 해도 올 5월 현재 25개로 줄었고, PC방은 같은 기간 중에 21개에서 13개로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 성향과 생활 패턴이 확연히 바뀌며 지역 내 업종별 사업체 수의 증감 추세도 뚜렷한 변화를 겪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100대 생활업종과 관련해 주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나 용역을 판매·취급하는 업종으로 국제청이 매월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김제시 공덕면은 지난 18일 공덕면사무소에서 30명의 이장들과 색다른 이장회의를 열어 코로나 시대 새로운 소통창구를 열었다. 바로 코로나19에 대응코자 ZOOM 앱을 이용 비대면 화상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 시의성 있는 시정 전달

김제시 공덕면, ZOOM 앱 활용 이장들과 비대면 화상회의

김제시 공덕면(면장 천만영)은 지난 18일 공덕면사무소에서 30명의 이장들과 색다른 이장회의를 열어 코로나 시대 새로운 소통창구를 열었다.

바로 코로나19에 대응코자 ZOOM 앱을 이용 비대면 화상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그동안 공덕면은 방역수칙에 따라 홍보 및 전달사항을 공문, 홍보물 등 서면으로 전달해왔다.

대면회의에 비해 각종 시책, 제도에 대한 이해도, 신속한 전달에 제한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덕면은 이장들에게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8월부터 비대면 회의에 들어갔다.

공덕면에 따르면 지난 18일 비대면 회의로 면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변화된 시책, 시정에 대해서도 시의성 있게 홍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수기 공덕면 이장단협의회장은 "낮선 온라인 회의로 어색한 점이 많았지만 각종 정보를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시정을 전달할 수 있어 좋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천만영 공덕면장은 "처음으로 실시한 비대면 화상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이장님들이 코로나 방역차원에서 실시하는 점에 공감하며 따라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다"면서 "접차 보완해 안정적 시정 전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역 자동차기업 성장동력 확보 · 일자리 창출

김제시, 국내 물류비 지원 · 해외시장 진출 · 증설 사업화 등 3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사업 일환으로 관내 자동차관련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 해외시장 진출지원사업, 증설 사업화 지원사업 등 3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은 2021년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했거나 기존 거래처로부터 신규 부품(제품) 수주를 받은 기업의 국내물류비의 80%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2개사를 모집하여 기

업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국내외 인증 취득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사를 모집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증설 사업화 지원사업은 관내 공장을 소유한 기업이 2021년 공장을 확장 하였거나 신규 공장을 준공한 경우에 시제품 제작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사를 모집해 기업당 최대 1,6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2021년 하반기 고용

계획이 있는 관내 자동차관련 기업으로 신청은 25일까지이며, E-Mail(job@camtic.or.kr)접수만 가능하다. 심사는 평가위원회에서 진행되며 8월 말 최종 선정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인 (사)캠틱종합기술원(☎063-219-038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지원사업'을 추진중으로 2024년까지 더 좋은 일자리 3,000여개 창출을 목표로 275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미디어 · 손뜨개 · 가족공예를 배워보자 | 완주군,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9월부터 11월 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19일 도서관평생학습에 따르면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완주 관내 도서관(중앙, 고산, 공주팔각), 가족문화교육원, 주거밀집지역내 공방 등에서 운영된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강의실 내 인원을 축소(10명 내외)에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총 13개 강좌로 역량강

화 프로그램 4개와 취미소양 프로그램 9개로 진행된다.

역량강화에는 업무이클링 지도사 과정(자격증반), 스마트폰 1인 미디어(동영상 편집&활용), 퍼스널컬러 이미지메이킹, 스마트폰 활용기법이다.

취미에는 서예, 핸드플라워, 손뜨개, 패브릭일러스트, 토탈공예, 켈트, 마크라메, 도예, 가족공예가 이뤄진다.

만 19세 이상 완주군민 또는 완주 소재 직장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내달 17일까지 선착순으로 접

수받는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완주군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평생학습팀(290-2284/28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로 지친 일상에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배움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영상문화도시 이미지 굳히기

완주군, 전주영상위와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협약 국내 외 영상 제작 · 촬영토록 홍보 · 유치 활동 협의

완주군이 (사)전주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원회)와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문화도시 완주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군은 19일 오후 2시 군청 전략회의실에서 박성일 완주군수, 박홍식 전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전주영상위원회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날 완주군과 영상위원회는 양 기관의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을 다지고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영상물이 완주에서 제작 및 촬영 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과 유치 활동에 공동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군은 영상위원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완주의 아름다운 산하와 귀농귀촌, 로컬푸드, 수소산업, 공동체 문화 등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완주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영화·방송 제작 로케이션을 유치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박성일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완주군과 영상위원회가 완주의 매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금연캠페인